

우리민족의 '근대인쇄' 시기를 따지자면 해방 이후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해방 이전에는 근대식 인쇄가 별로 없었고 그나마 일제가 운영하던 인쇄소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해방 이후의 인쇄역사 기록을 찾자면 1954년에 창간되어 오늘날까지 발행되고 있는 인쇄신문이 유일하다. 이에 본지에서는 지난 역사를 더듬어 보는 의미에서 1950년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인쇄역사를 월별로 정리해 시리즈로 보도한다. 이번 호에는 1954년 이후 매년 2월에 보도되었거나 광고에 게재되었던 내용을 소개한다.

● 시들해진 중고인쇄기 수입 열기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여왔던 중고인쇄기 수입이 주춤해졌다. 1993년 2월 26일자 인쇄신문은 경기부진으로 인쇄물이 전반적으로 줄어듦과 인건비, 재료비, 건물임대료 상승 등의 원인이 겹치면서 중고인쇄기 가동으로는 채산성을 맞추기 어렵게 됨에 따라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여기에 애프터 서비스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해 생산 활동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점, 해외산지값 상승에 따른 가격인상도 중고인쇄기에 대한 인기하락의 원인으로 지적됐다. 인쇄신문은 중고 인쇄기의 주요 수요처인 중소인쇄사가 계속된 경기침체로 경영압박을 받고 있으며 품질마저 저하돼 인쇄물주문받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참고로 1992년 우리나라에 수입된 중고인쇄기는 1890만 달러인 것으로 집계 됐다.

● 지류생산 크게 신장

1976년도 국내지류업계의 각종지류 생산실적은 판지 및 인쇄용지 등의 수출시장에 힘입어 전년도에 비해 크게 신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1977년 2월 15일자 인쇄문화시보는 한국제지공업연합회가 발표한 자료를 통해 이같이 전했다. 당시 집계된 자료에 따르면 1976년도 한해 동안 제지업계는 수출 경기상승세에 힘입어 판지류가 1975년보다 76.2% 증가한 5만 2981톤, 인쇄용지는 137.2%나 급증한 3만4159톤, 크라프트지는 135.4% 증가한 6156톤, 신문용지는 59.8% 증가한 6998톤, 전체 수출물량은 1975년 5만1732톤보다 95.1% 증가한 10만910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내수부문도 61만2967톤에서 34.5%가 늘어 82만4194톤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1976년도 지류재고량은 1975년도 재고량인 5만2459톤보다 35.1%가 줄어든 3만4047톤으로 집계됐다. 시보는 1977년도 생산목표를 104만톤으로 책정한 제지업계가 10개 인쇄용지 메이커들의 생산량의 25% 수출의무화와 함께 신종·한창 등 판지메이커의 생산시설증설에 따른 수출물량확대방안을 수립, 수출도 15만톤 규모로 늘려 잡았다고 전했다.

● 인쇄요금, 예산편성기준가격인상 절실

대한인쇄공업협동조합연합회가 현실에 맞는 인쇄요금의 예산편성 기준가격 인상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경제기획원 장관에게 전달했다. 1978년 2월 1일자 인쇄문화시보는 이 같은 내용을 전하면서 인쇄 산업에 활기를 불어넣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며, 종업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건의서는 인쇄가 민족문화의 척도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출산업면에 있어서도 모든 상품의 포장과 선전에 불가피한 요소로서 국제수지개선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인쇄산업은 아직도 선진국에 비해 기술, 시설, 경영면에서 낙후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어 세계적으로 고급화 되어가고 있는 인쇄물생산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건의서는 이와 같이 인쇄산업이 취약성을 극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전체인쇄물생산의 약 40%를 점유하고 있는 관수용 인쇄물의 인쇄요금이 너무 저렴한 것이 인쇄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관수용 인쇄요금이 일반민간인쇄물 인쇄요금의 절반정도밖에



되지 않아 관수용인쇄물의 의존도가 높은 수많은 인쇄업자는 종업원의 처우개선이나 시설투자를 할 수 없어 점차로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하고 각별한 지원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촉구했다.

### ● 인쇄용지 포장재 개선 시급

1991년 2월 15일자 인쇄신문은 인쇄용지 포장재 개선에 대한 인쇄업계의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폴리에틸렌으로 처리한 용지포장재가 소각이 어렵고 재생·재활용에도 불편해 인쇄업계의 심각한 문제 거리로 등장했기 때문.

인쇄신문은 1990년 한해 동안 제지회사에서 생산돼 전국의 크고 작은 인쇄사에서 소화된 인쇄용지가 92여만 톤으로 이 가운데 폴리에틸렌 포장재의 양이 엄청난 수준이라고 지적한 뒤, 특히 성수기에 한꺼번에 쏟아지는 포장재가 제때 처리되지 못하고 인쇄작업장 주변에 쌓이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환경보호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폴리에틸렌 포장재는 환경관계법에 산업폐기물로 분류돼 함부로 소각하거나 버릴 수도 없는 형편인데 수거업체마저도 폴리에틸렌 포장재 수거를 외면하고 있어 인쇄업계 입장을 더욱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는 것.

인쇄신문은 인쇄사들이 자체해결 방안으로 제책이나 인쇄물 포장 분야에서 재활용을 시도하고 있지만 포장재질로써 효율도가 떨어져 신통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인쇄업계에서는 포장재처리를 위해 인쇄인뿐만 아니라 제지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차원에서 관련 업계와 단체에 공한을 발송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인쇄업계의 주장은 제지업계에서 공해발생 요인인 폴리에틸렌포장재 대신 랩 포장 또는 비닐포장을 한 후 다시 크라프피로 포장하

도록 포장을 이원화하거나 양이 많을 때는 파레트당으로 공급해 달라는 것. 그러나 이에 대해 제지업계에서는 작업생산성의 저하·공정의 어려움을 이유로 난색을 표명했다고 인쇄신문은 전했다.

당시 기사에 따르면 모 제지회사 기술부장은 “포장이원화는 생산과정의 작업성 및 능률을 크게 떨어뜨리는 등 제지업계 현실로서는 수용하기 어렵고 특히 최근의 기술직 일손 부족으로 포장이원화는 더욱 실현하기 곤란하다”며 “각 제지회사마다 적절한 대책강구해 부심중이며 현재 여러 방안이 연구중에 있다”고 말했다.

### ● 고교 2종 교과서 적기 공급 위해 총력

1979년 2월 1일자 인쇄문화시보는 동년 고교 2종 교과서의 적기 공급을 위한 과정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시보는 한국2종교과서발행조합의 설명을 인용하면서 제지회사들의 용지공급이 대부분 끝났고 인쇄와 제책에 총력을 기울여 철야작업 등으로 인쇄공정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으며, 고급지인 아트용지는 동년 1월 10일경에 공급이 끝남으로써 미술, 사회과부도 등 교과서 인쇄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미 제작이 끝난 교과서들은 전체의 50%를 이미 전국의 교육청 단위로 발송을 마침으로써 당초의 공급계획에 맞춰 차질없이 신학기에 학생들 손에 들어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보도했다.

당시 2종교과서의 제작과 공급에 있어 특이한 점은 종전의 발행출판사들이 제작과 판매를 도맡아 하던 것과는 달리 문교부당국이 건본전시회를 통해 제작주문을 받음으로써 출판사들의 경쟁을 지양시켰다는 것. 한편 교과서의 가격에 있어서도 시보는 문교부당국의 철저한 조사 끝에 결정될 것으로 보아 전년도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치원 기자 kcw@print.or.kr